

광주 온 국제대학스포츠연맹 조지 킬리안 집행위원장

“광주 체육시설 완벽한 여건 갖췄다”



월드컵 경기장·염주체육관 최고 수준 후보 도시 시민들의 유치 열망이 관건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이하 U대회)를 주관하는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의 조지 킬리안(84)집행위원장은 7일 “광주 월드컵 경기장과 각종 체육시설은 지금까지 둘러본 여러 도시의 경기장 가운데 최고”라고 밝혔다.

상황에서 킬리안 위원장과 에릭 생트롬 사무총장이 U대회 유치 후보도시인 광주시를 방문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사례로 받아들여진다. 개최지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가 러시아 카잔 등 유치 경쟁 도시의 시선에도 불구하고 광주를 찾은 것은 그만큼 광주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는 것이다.

를 꼼꼼히 점검했다. U대회 유치 노하우와 관련, 박광태 광주시장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는 그는 “중요한 유치조건이 여러가지 있지만, 충분한 경기장 시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선수단 숙소가 경기장과 가까운 것은 물론 후보 도시의 시민들의 유치 열망이 높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남산 누에씨 ‘백옥잠’ 작년 이어 또 우즈벡 간다 전남농기원, 400상자 수출

전남에서 생산된 누에씨(누에알)가 지난해 이어 두번째로 우즈베키스탄에 수출된다. 전남도 농업기술원은 7일 “장성군에 위치한 농산물원종장 분장에서 자체 기술로 생산한 ‘누에씨’ 400상자(19g들이) 7.6kg을 우즈베키스탄에 수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누에씨 수출은 농촌진흥청과 우즈베키스탄 나만간주(州)간의 양잠기술 이전 협약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300 상자(5.7kg)를 수출한 데 이어 두번째다.

이번에 수출되는 누에씨는 전남도에서 친환경적으로 생산한 순도 높은 ‘백옥잠’ 품종으로 누에가 건강하고 고치층이 두꺼우며 실의 굵기가 얇다.

김종선 분장장은 “앞으로 누에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함께 누에씨 수출을 통해 수익 증대 및 친환경농업 이미지가 제고에 힘써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7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여의원들이 김용철 변호사 증인 채택문제로 대립하면서 김성호 국정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했다. 이날 오전 김성호 국정원장 내정자(앞쪽)가 의원들의 텡빈자리를 마주한 채 청문회장에 혼자 앉아 있다.

김성호 국정원장 청문회 무산

여야, ‘삼성 떡값’ 증인 채택 싸고 대립 삼성특검, 김용철 변호사 주말 조사

국회 정보위원회는 7일 김성호 국정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김 내정자의 ‘삼성 떡값’ 의혹을 제기한 김용철 변호사의 증인 출석 문제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청문회가 무산됐다.

청문회가 무산될 경우 이명박 대통령은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20일이 경과하는 오는 23일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김 내정자를 임명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측은 김 변호사가 이날 출석이 불가능하다면 청문회 5일 전에 증인출석 요구서를 발송토록 한 인사청문회법상 증인 출석 요구 절차에 따라 청문회를 12일로 연기해 김 변호사를 출석시키자고 주장했지만, 한나라당은 김 변호사 출석 요구는 김 내정자에 대한 정치 공세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청문회 연기 주장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섰다.

는 만큼 반드시 김 변호사로부터 진실을 들어야 한다”면서 “김 변호사가 출석에 부정적이라도 출석요구서가 가면 충분히 생각할 기회가 있을 것이고 증인으로 함께 신청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소속 신부는 국회 출석의사를 밝힌 것 같다”고 말했다.

시설

전남 서남부 갯벌 보존대책 시급하다

세계 5대 갯벌의 하나로 꼽히는 전남 서남부 해안의 갯벌이 지자체의 무분별한 ‘갯벌 축제’로 훼손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남 서남부 해안에선 매년 신안 갯벌 올림피아 축제, 입자해변 축제, 무안 갯벌 체험, 진도 신비의 바닷길 등 갯벌 관련 각종 행사가 해당 지자체 주체로 열리고 있다.

이다. 대부분의 어패류 먹이 섭취와 번식 장소로 이용되면서 어업활동의 90%가 갯벌에서 이뤄진다. 생산성도 농지보다 3배에서 최고 20배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런 천혜의 보고가 일시적인 경제효과를 노린 축제 때문에 훼손되는 안 된다.

경제성장보다 물가 안정 우선해야

물가관리에 경고음이 잇달아 울리고 있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7일 올해 연간 물가상승률이 당초 전망치 3.3%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 원유가와 곡물가격 상승률이 예상보다 높아 물가 상승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은행 등은 당초 5%를 넘을 것으로 내다봤으나 대부분 최근 수정을 통해 전망치를 대폭 낮췄다. 3%대의 비관적 전망을 내놓은 곳도 있다.

감사원 사무총장 남일호씨 소방방재청장에 최성룡씨

이명박 대통령은 7일 감사원 사무총장에 남일호 감사원 제2사무차장, 법무청장에 박종달 육군 인사사령관을 각각 임명하는 등 의정청 및 차관급 11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자부 지방행정본부장, 국립중앙박물관에 최광식 고려대 교수가 기용됐다. 한상철 국제청장과 임제진 검찰총장, 김중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유임됐으며, 4월 임기가 종료되는 전상우 특허청장은 일단 임기를 채울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北 조평통 “남측 인권 언급은 반민족적 망발”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6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한국 측이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 데 대해 “반민족적 망발”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수석대변의 발언을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전면 부정하고 북남관계를 대결로 몰아가는 반민족적 망발로 낙인찍으면서 이를 단호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빛日만평

- 김중두



통과되는 신통방통한 일은 없을거요

한·중, 베이징 올림픽 전후 무비자 왕래 추진

이달말부터 中 관광객 복수비자 대상 확대

베이징올림픽 기간을 전후한 7월부터 9월 까지 한·중 양국간 무비자 입국이 추진되고 이달 말부터 중국인 관광객의 복수비자 발급 대상이 크게 늘어났다.

주자, 일정 횟수 이상 방한한 항공사·선사 임직원, 상품 구매 소규모 상인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부터 도입된 청소년 수화여행단 무비자 입국 제도 등이 여전히 불편하다는 업계 지적을 받아들여 인출교사의 영사 인터뷰와 여권 제출, 단체 관광객 입국신고서 작성을 생략해주고 단체 관광객 최소 구성단위도 5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줄일 방침이다.

Table with publication information for Kwangju Ilbo, including contact details and subscription rates.